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 비판: 양호론과 교육자론의 식민성* 1)

박균섭(朴均燮)
(경북대학교 교수)

<目次>

1. 연구문제 설정
2. 박종홍의 퇴계의 양호론 연구 비판
3.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자론 연구 비판
4. 과제와 전망

<국문 요약>

박종홍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28년에 퇴계의 교육사상 연구를 통해 퇴계학의 정체성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교육에 복무했던 박종홍은 식민 교육체제의 기만과 폭력의 언어에 감염된 상태에서 퇴계학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박종홍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이 논문은 한국일본근대학회 제41회 국제학술대회(2020.10.24. On-line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퇴계의 교육사상을 연구하면서 제시한 양호론과 교육자론은 퇴계학의 기본 정신과는 결을 달리하는 요소들이 불박혀 있다. 그것은 식민교육의 언어로 조립된, 그것도 일본식 사범교육론의 세례를 받아 전개된 퇴계학 연구였다는 점에서 퇴계학의 정체성을 명징하게 밝히는 연구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는 해방 이후에도 무비판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특히 양호론과 교육자론에 개입된 일본적 욕망을 견어내는 작업이 요망된다. 박종홍의 해방이전의 퇴계학 연구에 대한 무비판적 계승은 결과적으로 해방이후의 퇴계학 연구에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제어: 박종홍, 기만과 폭력의 언어, 양호론, 교육자론, 일본적 욕망.

1. 연구문제 설정

일본은 1886년(메이지 19)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소학교령, 중학교령을 칙령으로 공포하였는데, 사범학교령 제1조에서는 “생도로 하여금 순량(順良)·신애(信愛)·위중(威重)의 기질을 갖추도록 유의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교사양성 체제에서도 교육자의 덕목과 책무와 사명감을 강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1911년에 관립한성사범학교를 폐지한 후 더이상 독립된 교원양성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신에 경성고등보통학교 및 평양고등보통학교에 교원속성과를 설치하

였다. 1913년에는 두 학교에 이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신설하고 교원속성과를 폐지했으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였다.²⁾ 박중홍(1903~1976)의 초기 이력을 보면 평양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3개 학교에서 교사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1920년 3월,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수료(1종 보통학교 훈도 자격 취득, 1921.3.)한 후, 1921년 4월 전남 보성공립보통학교 교사(훈도)로 발령을 받았고, 이듬해 1922년 4월에 대구 수창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쳤다. 1925년 3월에는 그 당시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다”는 중등교원자격검정시험인 ‘문검’(文檢: 日本文部省中等教員資格檢定試驗)에 합격하여, 1926년 4월,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 교사(教諭)로 발령받고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다가 1929년 4월, 전문학교입학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 선과생으로 입학하였다.³⁾ 1921년 4월~1929년 3월

2) 김태웅, 『신식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파주: 서해문집, 2017, 339쪽.

3) 박중홍은 평양고등사범학교 사범과를 수료(1종 보통학교 훈도 자격 취득, 1921.3.)했고, 특히 1925년의 문검 교육과 응시를 통한 중등교원자격 취득은 메이지시대 이래의 사범교육학의 언어를 통해 순량(順良)·신애(信愛)·위중(威重)의 기질을 갖추고, 또한 그러한 학생을 길러내는 길을 걸었음을 보여준다. 박중홍은 문검 교육과 응시를 위해 교육학개론, 교육사, 교육사조, 심리학, 논리학 등을 공부하였는데, 별로 취미를 느낄 수는 없었으나 교육사는 철학사하고도 관련되어 비교적 재미있었다고 회고하였다(박중홍, 「독서회상: 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박중홍전집VI』, 270-271쪽). 박중홍철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고성애, 「박중홍 철학의 형성과정 연구: 경성제국대학 입학 이전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8, 2013, 46쪽 참조. 박중홍 철학의 형성과정에 근대일본교육학 및 사범교육학이 끼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寺崎昌男·「文檢」研究會 編, 『「文檢」の研究: 文部省教員檢定試驗と戰前教育學』, 東京: 學文社, 1997; 岩部

까지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일선학교에서 교사의 길을 걸었던 박종홍에 대한 논의는 해방이후의 이력을 중심으로 그의 연구업적과 철학자로서의 삶의 세계에 주목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종홍의 연구이력을 보면 철학사상 연구에 머물지 않고 교육학(교육학개론, 교육사, 교육사조)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발생사적 특징은 박종홍이 철학자의 길을 들어서기 전, 10대 후반 및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당시에 보여준 특징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종홍의 연구 궤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방이후의 업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해방 이전의 시공간에서 어떤 교육 관련 활동 및 퇴계 관련 연구를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1928년의 「퇴계의 교육사상」(『경북의 교육』 제6호, 1928년 3월. 원문 탈고는 1927년 7월 18일)을 주제로 한 논문 발표는 발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보성공립보통학교-수창공립보통학교-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교사로서

撓, 『文檢教育勅語·戊申詔書·國民精神作興詔書解義: 附·朝見式勅語·國際聯盟離脫詔書謹解』, 東京: 啓文社書店, 1934 참조. 특히 다이라 메구로(平良惠路) 및 도미타 요시오(富田義雄)는 문검 수신과교육과 위원의 교육사상과 윤리사상의 향방(교육과 위원의 교육사상: 吉田熊次, 大瀬甚太郎, 乙竹岩造, 下田次郎, 小林澄兄, 수신과 위원의 윤리사상: 吉田靜致, 宇野哲人, 深作安文, 友枝高彦)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平良惠路·富田義雄, 『文檢修身科教育科委員の思想研究』, 東京: 大同館書店, 1934.). 이상을 통해볼 때, 박종홍 철학의 형성 과정은 교육직어 정신과 문부성의 전진교육학 이론에 입각한 중등교원검정시험체제라는 자장에 간혀있었으며, 그의 철학-교육학 세계는 문검의 국민도덕요령을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의 근무경력, 연구환경 및 연구사적 배경을 놓고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⁴⁾

조선총독부의 식민교육이란 어떻게 하면 조선민중의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소멸·좌절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⁵⁾ 이는 조선인이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강요받았던 당시의 현실에 대한 밀착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며, 당시의 교육을 교육학 본연의 이론적 전망을 통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종홍의 교육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언어형태로 표방되는 교육의 이면·저변·저류를 흐르는 교육의 식민성·기만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식민지 지배·통치의 외재적 원리가 무력·폭력이라는 점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통치의 내재적 원리가 기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포착·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근대교육사 연구의 과제는 일본인의 조선교육 침략의 폭력성과 기만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침략·지배·교육의 매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교육의 정체성·주체성 문제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⁶⁾

박종홍이 퇴계의 교육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한 시점은

-
- 4) 박근섭,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사상」(19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철학·사상·문화』, 34,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0, 153-180쪽.
 - 5) 尹健次, 『朝鮮近代教育の思想と運動』,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2. 이명실·심정보 역,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서울: 살림터, 2016, 229쪽.
 - 6) 尹健次, 위의 책, 231쪽.

어떤 정치·사회·교육 상황에 놓여있었는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사상」(1928)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목적론과 방법론을 두 축으로 한 구성을 보인다. 목적론에서는 (1) 윤리적 목적, (2) 부차적 목적, (3) 목적의 동적 해석 등 총 3절을 다루었다. 방법론에서는 (1) 방법총설, (2) 학습론[① 교재론, ② 학습방법론], (3) 훈육론, (4) 학습과 훈육과의 관계[① 지행호진설, ② 경], (5) 방법여론[① 양호론, ② 교육자론] 등 총 5절을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목적론과 방법론을 두 축으로 하여 퇴계의 교육사상을 구축하는 접근법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육사상 연구의 틀에 비추어볼 때 구도상의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다소 이색적인 구성 방식도 눈에 띄는 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방법론의 5절에 해당하는 (5) 방법여론[① 양호론, ② 교육자론]이 될 것이다. 박종홍이 퇴계의 양호론과 교육자론을 방법론, 그것도 방법여론에 배치하여 기술한 것은 어떤 적합성과 적절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박종홍은 교사자격을 얻는 과정(교사양성체제)을 통과하면서, 근대일본 교육학 및 사범교육론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식민교육체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길을 걸었다. 본 주제 연구에서는 박종홍의 퇴계의 양호론과 교육자론에 대한 기술 과정에 어떤 식민적 굴절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퇴계학 연구의 정체성이 훼손된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2. 박종홍의 퇴계의 양호론 연구 비판

박종홍은 퇴계의 교육사상 연구에서 방법여론의 한 축으로 양호론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그리 익숙한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교육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학/교육사상 연구영역에 양호론을 포함시킨 것은 이색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종홍이 주목한 양호론은 어떤 발생 배경과 연원을 갖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근대 일본교육학의 논의 구조를 보면, 교육학에 대한 논점으로 교육방법론을 1유형(① 教授論, ② 訓育論, ③ 養護論)⁷⁾, 2유형(① 教授論, ② 訓練論, ③ 養護論)⁸⁾, 3유형(① 養護論, ② 教授論, ③ 訓練論)⁹⁾으로 구분 제시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유형이 되었건 양호론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양호론은 당시 文檢(文部省教員檢定試驗)에서 자주 출제될 정도로 교육학의 중요 영역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일본식 교육학의 세 축(교수, 훈육, 양호)을 구성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갖는 것이었다. 양호의 개념적 정의는 학교교육에서 일반 아동·학생의 보건을 챙기는 일, 돌봄이 필요한 아동·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

-
- 7) 森岡常藏, 『教育学精義』, 東京: 同文館, 1906; 溝淵進馬, 『教育学講義』, 東京: 富山房, 1909.
 - 8) 三浦藤作, 『教育大意講義: 附·教育史大意』, 東京: 大同館書店, 1925; 椿眞太郎, 『訓導必携』, 東京: 養護研究會, 1938.
 - 9) 波多野貞之助, 『教育学: 附·学校管理法』, 東京·大阪: 宝文館, 1907; 藤井利譽 編, 『女子師範教科 教育学』, 東京: 黒目書店, 1910; 湯本武比古·中沢忠太郎 編, 『教育学教科書』, 東京: 開発社, 1910; 立柄教俊, 『国民教育原理 実用教育学』, 東京: 黒目書店, 1914.

는 일을 일컫는다. 특히 <국민학교령>(1941)의 ‘양호훈도’ 조항(제17조: “양호훈도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아동의 양호를 담당한다.”)에 주목하여 1941년을 일본 양호교사제도가 시작되는 해로 규정하는데,¹⁰⁾ 사실상 당시의 양호론은 아동·학생을 예비전력(reserve war power)-잠재전력(war potentials) 자원으로 취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사 논의의 장에서는 근대일본교육학의 심신 상관론에 입각한 교수론-훈육론-양육론의 구축 내지는 지적 발달, 도덕 실천, 신체 건강의 연계를 강조하는 방식의 학교교육론이었다고 기술하지만,¹¹⁾ 그 내막을 보면 메이지시대 이래의 제국주의·군국주의적 세계관과 전쟁욕망이 짙게 반영된 것이었다.

현대교육학에서 이론적으로 교육학과 의학(양호론)의 만남과 연계를 소홀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비판적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일본발 근대교육학 및 식민지교육학에서 양호론을 주축으로 삼는 것 또한 일본적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교육학 본연의 논의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수상적임을 밝혀내기 위해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사상, 특히 양호론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대일본교육학에서 양호

10) 大谷尚子, 「わが国における「養護」という言葉の使われ方について」,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誌』, 4(1),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 2001, 100-109쪽.; 杉浦守邦, 「養護教諭はどうしてこの名が付いたか」,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誌』, 5(1),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 2002, 14-23쪽.

11) 당시의 학교교육은 플라톤의 심신이원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신일원론보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심신상관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몸과 마음의 단련과 훈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 전교 조회 및 강당 훈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森隼三, 『一日の教育』, 東京: 宝学館, 1920, 49-67쪽 참조.

론은 필수적인 논의 주제였기에, 박종홍은 퇴계의 교육사상을 작성하면서도 방법여론의 한 축인 양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애기를 시작하였다.

㉠ 각고면려(刻苦勉勵), 오로지 학업의 진취를 위하여 노력하여 마지않는 적극적 태도는 물론 필요한 것이나, 그렇다고 자초지종 언제나 이것만으로 관철하려고 함은 무리다. 적당히 심신(心身)의 휴양(休養)도 돌보아야 한다. 신고(辛苦)와 휴양(休養)의 둘은 서로 도와 나아갈 때 비로소 완전할 수 있는 것이요 그중의 어느 하나만으로서서는 옳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문집』 권37 「답이평숙」). 요셋말로 이른바 <리크리에이션>의 필요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상도 퇴계 자신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임직도 하다. 과연 퇴계는 젊었을 시절에는 너무나 애를 써 무리한 공부(工夫)를 강행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생긴 고질(痼疾)이 퇴계의 일생을 괴롭혔던 것이다(『언행록』 권1 「학문 이덕흥기」). 그러나 퇴계의 근엄(謹嚴)한 일상생활과 자연을 벗삼는 주도한 신심 휴양에 관한 주의는 그의 고결한 인격수양의 힘과 아울러 그 시대로서는 드문 고희(古稀)의 장수(長壽)를 할 수 있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익장(老益壯)의 기세(氣勢)를 보였다고 할 정도로 학술연구상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저술들은 거의 그의 노후의 작이었다.¹²⁾

인용 ㉠을 통해, 박종홍은 퇴계의 양호론을 구성하는 계열 언어로 각고면려, 심신의 휴양, 리크리에이션의 필요, 무리한 공부와 그로 인한 고질, 자연을 벗삼는 신심 휴양, 고희의 장수, 노익

12)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VI』, 서울: 민음사, 1998, 152-153쪽.

장의 기세 등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종홍은 퇴계의 양호론이라는 타이틀 아래, 양호의 기본과 양호론의 전제를 말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유교성리학 일반의 매우 익숙한 개념들을 끌어들이어 양호론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유교성리학의 양심(養心)·양기(養氣)·양성(養性)·양생(養生)·양진(養眞)의 개념을 동원하여 풀어쓰기 방식을 취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어색하고 생경한 논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¹³⁾ 박종홍

13) 유교성리학의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론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맹자의 “마음을 기르는 일은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養心莫善於寡欲]”는 말(『孟子』, 卷14, 「盡心章句下」)에서 ‘양심(養心)’의 개념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음을 기른다(다스린다, 보존한다)는 양심(치심, 존심)은 기를 기른다는 ‘양기(養氣)’와 동의어에 가깝기에 한 인물의 삶에 대해 “오직 마음을 다스리고 기를 기르는 데 힘썼다[唯以治心養氣爲務]”고 평가하기도 한다(『退溪集』, 卷43, 「養心堂集跋」). 그리하여 ‘양심’과 ‘양기’가 일체를 이룰 때에 마음은 절로 바르게 되고 몸은 절로 닦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보존[存其心]을 일컫는 존심과 본성의 함양[養其性]을 일컫는 양성(『孟子』, 卷13, 「盡心章句上」)에 대한 논의에서 ‘양성(養性)’하는 방법은 존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생(養生)’은 권력과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지친 심신의 회복을 기약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퇴계의 양생에 대한 견해는 “하늘의 신선은 원치 않고 지상의 선인은 되겠다고 하였으니[不願天仙作地仙], 옛사람이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다[古人爲余道此言也]. 몸이 쇠약하고 병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였으나[衰病思歸]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였다[久未得焉]. 나는 수곡 이찬(守谷 李滌, 1498~1554)이 강 언덕에서 조용히 수양한다는 말을 듣고[聞守谷李公養靜江皋] 마음속으로 흠모하였다[而心慕之]. 하루는 전 감찰 허군 모가 나에게 이찬이 쓴 「양생설」 8쪽을 보여 주기에[一日前監察許君某示余以守谷所書養生說八幅] 그 글을 읽고 그 글씨를 완상하였는데[讀其文玩其字], 수양하는 일에 느낌이 있어[有感於修養之事] 주자가 「백양서」에 관심을 가졌던 뜻을 더욱 알게 되었다[益知晦菴拳拳於伯陽之書之意]. 수곡은 능히 지선이 되었는데 나만 홀로 되지 못한 것인가[噫守谷能作地仙而余獨不能耶] 몇 자를 「양생설」 끝에 적어서 돌려보냈다[識數字書尾而歸之]. 내일이면 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明日將歸山]. 1553년에 청량산인 씀[嘉靖癸丑清涼山人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退溪集

은 1928년의 퇴계학 연구 이래, 양호론을 키워드로 삼아 퇴계학을 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특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종홍이 제시한 퇴계의 양호론은 배움에 뜻을 둔 자들이라면 모름지기 신고공부(辛苦工夫)와 휴양공부(休養工夫)의 조화를 통해 고결한 인격수양의 경지에 당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성리학의 언어로는, 미발지시(未發之時)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발지시(已發之時)의 마음을 안정케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바, 이를 통해 심기를 편안하게 하는 일, 기력을 돌보는 일, 물욕을 삼가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② 무릇 학(學)에 뜻하는 자의 대다수가 자기의 기력(氣力)을 돌봄이 없이 성급히 초조한 태도를 취하여 대변에 유심 현묘(幽深玄

』, 卷43, 「書許監察所藏養生說後」). 이처럼 양생은 양생(養生)-수련(修鍊)의 조합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이는 응당 부모가 살아계실 때 봉양하는 것[養生]과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모시는 것[送死]을 일컫는 양생(養生)-송사(送死)의 연계 방식(『孟子』, 卷8, 「離婁章句下」)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퇴계는 ‘양진(養眞)’의 의미에 대해 “산과 물을 함께 하니 정신을 기르기에 족하다[依山臨水足頤神]”는 말로 풀이하였다(『退溪集』, 續集卷1, 「養眞庵得吳仁遠書有養眞字因寄一絕」). 양진에 대한 설명에도, 양심의 개념이 동원된다.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養心莫善於寡欲]”는 말(『孟子』, 卷14, 「盡心章句下」)을 바탕으로 삼아 “욕심을 적게 한다는 말을 진을 기르는 제일 의로 삼을 수 있다[請以寡欲爲養眞第一義]”는 말이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牧隱集』, 文藁卷3, 「養眞齋記」). 이상의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론은 대체적으로 권력-욕망의 세계와 거리를 두는 방식의 몸과 마음을 잘 기르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근사록』에서 “마음을 기르는 일은 경의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養心莫善於持敬]”고 했던 데서도 그 대략을 확인할 수 있다(『近思錄』, 卷4, 「存養[伊川先生曰學者須敬]」).

妙)한 오의(奧義)를 다하려고 억지로 탐색에 고심하는 나머지, 이른바 알묘조장(揠苗助長)의 화를 초래하여 드디어 후회하여도 만회할 길 없는 병근(病根)을 빚어내고 만다(『문집』 권14 「답남시보」). 주자도 젊어서는 같은 과오를 저지른 일이 있었다고 하여 청년 성기(盛氣)의 문인으로 하여금 지나친 조급이 없도록 경계한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외계 물욕에 대한 반응을 삼가고 득실·영육·이해 등에 함부로 동하지 말 것이며, 미발지시(未發之時)의 공부(工夫)를 쌓음도 필요하지만, 그 발(發)함에 있어서 조망(躁妄)을 금하고 속으로 마음을 안정케 하여야 한다. 이것을 힘쓰지 않고 마음을 구속하기부터 하므로 병이 생기기 쉬운 것이라고 한다(『문집』 권39 「답이비언」/『문집』 권14 「답남시보」).¹⁴⁾

③ 일상생활에 있어서 젊은 혈기만 믿고 무리를 할 것이 아니요 절제 있는 태도로 마음을 너그럽이 편안히 가져 도서(圖書)·화초(花草)라든가 계산(溪山)·어조(魚鳥) 같은 것을 구경하며 즐기어 심기(心氣)를 순경(順境) 속에 있게 할 것이요 성을 내거나 분하여 하지 않는 것이 요법이다. 독서를 하는 태도 정신을 고되게 함은 잘못이다. 절대로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참된 맛을 즐길 것이니 궁리(窮理)는 일용(日用)의 평이명백(平易明白)한 것을 간파하여 익히도록 하되 그 이미 아는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색이 전개되어야 한다(『문집』 권14 「답남시보」). 요컨대 심신 발달의 차이라든가 개별적인 성향 등을 돌봄이 없이 일률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겠으나, 정신을 억지로 과로케 하지 말고, 때때로 정신의 휴양과 신체의 운동을 알맞게 하여 심기를 편안하고도 기쁘게 함으로써 심신의 건전을 기도(企圖)하여야 된다는 것이다.¹⁵⁾

14)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VI』, 서울: 민음사, 1998, 153-154쪽.

인용 ②와 ③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박종홍의 퇴계의 양호론에 대한 기술은, 양호의 대상이 퇴계 자신임을 드러내는 가운데, 당시 학교교육에서 이를 참조·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서술로 보인다. 문제는 양호의 사전적 개념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요양·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제가 아닌 타인(아동, 학생)의 몸과 마음을 요양·보호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의 초점을 퇴계의 앎과 삶의 세계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를 양호론으로 재구성하는 논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며, 당시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쓸모를 염두에 둔 교사와 학생 양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범범하게 얘기하고 그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관심과 시선은 사실상 교사의 건강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아동·학생의 건강문제에만 쏠려있었기 때문이다. 박종홍의 양호론 서술 과정에서는 누가 양호의 대상인지에 대한 개념적 구분과 실질적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박종홍은 당시 일본교육학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퇴계의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의 삶 속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이를 양호론이라는 개념틀에 넣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박종홍이 퇴계를 논제로 삼아 양호론을 구성하기까지의 적절성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퇴계의 양호론이 아닌,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의 삶에 관련한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퇴계

15)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Ⅵ』, 서울: 민음사, 1998, 154쪽.

는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지녔으며 이는 삶의 실제에서 어떤 요양의 대상이었던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퇴계는 스스로를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병객(病客)으로 규정하였다. 병객 퇴계의 선택은 “병든 몸을 구실 삼아 한가한 몸이 되어[因病投閒客] 깊은 곳 찾아와서 세속 인연 끊고 사는 일[緣深絕俗居]”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경서를 끼고 사는 것[白首抱經書]”도 또한 “참으로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欲知眞樂處]”이었다.¹⁶⁾ 계상서당에서, 서울 전셋집에서, 그리고 동호독서당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기도 했다.

④ 계상서당에서: “시냇물 소리 타고 징검다리 건너면[釣跨溪聲度] 골짜기의 지세를 따라 서당이 열려 있네[堂依壑勢開]. 너무 깊고 궁벽하다고 남들은 웃지마는[從他笑深僻], 내 본분에 이만하면 배회하기 넉넉하다[素履足徘徊].……베개 베고 꿈속에서 신선되어 놓고 나서는[已著游仙枕] 『주역』을 읽으려고 창문 열어 두었노라[還開讀易窓]. 부귀와 권세는 손으로 잡을 것이 못 되어라[千鍾非手搏]. 여섯 벚(松+竹+梅+菊+蓮+退溪)을 서로 함께 할 마음의 벗으로 삼는다[六友是心降].”¹⁷⁾

⑤ 서울 전셋집에서: “서울의 셋집에 동산 뜰이 비었다니[漢陽賃屋園院空] 해마다 울긋불긋 온갖 꽃이 피어나네[年年雜樹開繁紅]. 담장 앞의 작은 살구나무 집보다 높이 솟아[牆頭小杏高出屋] 늦봄에 꽃이 피어 목련의 풍치를 대신하네[春晚始替辛夷風].……병든 몸으로 봄 석 달 동안 문밖출입을 하지 않고[我病三春不出門] 이따

16) 『退溪集』, 卷2, 「溪堂偶興[十絶]」.

17) 『退溪集』, 卷2, 「溪堂偶興[十絶]」.

금 지팡이 짚고 동산 속을 거닐었네[杖屨時及閒園中].……세상만사가 뜻대로 되기 어렵나니[世間萬事苦難諧]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강은 동쪽으로 흐르네[西飛白日江流東]. 꽃을 대하고 한 번 웃자 꽃이 내게 말하기를[對花一笑花有語] 아아 그대는 밭을 가는 농부가 알맞겠구나[嗟爾合作耕田翁].”¹⁸⁾

[6] 동호독서당에서: “늦은 봄 동호의 병든 나그네 마음이어[春晚東湖病客心], 온 뜰의 비바람에 밤은 더욱 고요하다[一庭風雨夜愴愴]. 내일 아침 높은 누각에 올라 바라볼 것 없도다[明朝莫上高樓望]. 푸른 숲에 붉은 꽃잎 흩날려 스러질 것이니[紅紫吹殘綠暗林].”¹⁹⁾

[7] 도산서당에서: “나는 늘 고질병을 달고 다녀 괴로웠기 때문에[余恒苦積病纏繞], 비록 산에서 살더라도 마음껏 책을 읽지 못한다[雖山居不能極意讀書].……그 뒤에 나이는 더욱 들고 병은 더욱 깊어지며 처세는 더욱 곤란해지고 보니[其後年益老病益深行益躓],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則世不我棄而我不得不棄於世].……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랜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면서 늙그막을 편히 보낼 곳을[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豁幽憂而晏然於窮老之域者] 여기 말고 또

18) 『退溪集』, 卷2, 「杏花[效王梅溪次韓昌黎韻]」. 퇴계의 서울 살이는 고향 예안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퇴계는 고향으로 내려갈 때 매화화분을 챙겨가지 못한 것에 대해 “동쪽으로 돌아갈 제 함께 못가 서운하다[東歸恨未携君去]”고 하면서, “내 고향 예안은[吾鄉禮安] 영남의 맨 북쪽에 있어서[在嶺南最北] 육로로 조령을 경유해가면[陸路由鳥嶺而行] 남으로 간다 하고[則曰南行] 수로로 죽령을 경유해 돌아가면[水路由竹嶺而歸] 동으로 간다고 한다[則曰東行]. 그것은 모두 예안(으로 내려가는 일)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皆指禮安而言也]”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 “강은 동쪽으로 흐르네[江流東]”고 한 말은 퇴계가 강을 따라 죽령을 통해 서울-예안을 오갔던 관성이 반영된 표현으로 보인다(『退溪集』, 卷5, 「漢城寓舍盆梅贈答」).

19) 『退溪集』, 續集卷1, 「雨夜」.

어디를 가서 구할 것인가[畚是將何求矣].……1561년(명종 16) 동지에 늙고 병든 산사람은 적는다[嘉靖辛酉日南至山主老病畸人記].”²⁰⁾

인용 ④·⑤·⑥·⑦은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病客], 고질병[苦積病]을 달고 사는 사람, 늙고병든 산사람[山主老病畸人] 퇴계의 심신 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계상서당은 1558년(명종 13)에 율곡 이이가 퇴계 이황을 방문했던 당시의 서당이기도 하였다.²¹⁾ 인용 ④에서 퇴계는 여섯 벗(蓮+梅+竹+菊+松+退溪)이 서로들 마음에 맞는다고 하였다[六友是心降]. 평생 병약했던 퇴계의 심신의 휴양은 여섯 벗이 함께 하는 삶의 과정이기도 했다. 휴양을 통해 심기를 편안하게 하는 일, 기력을 돌보는 일, 물욕을 삼가는 일은 서로 연동된 것이었다. 퇴계의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의 삶은 도산서당의 설립(1561)과 함께 배치된 정우당(淨友=蓮)과 절우사(節友=梅, 竹, 菊, 松)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²⁾ 그런데 이는 당시 수양공부론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근대일본교육학 및 사범교육학에서 주목했던 양호론의 화살표와는 구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 ⑤는 퇴계가 <붉은 복숭아꽃>²³⁾을 주제로 한 시와 함께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을 추구했던 삶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퇴계는 <붉은 복숭아꽃>을 소재를 삼은 시에서 “꽃나무를

20) 『退溪集』, 卷3, 「陶山雜詠[并記]」.

21) 『退溪集』, 卷2, 「李秀才叔獻 見訪溪上」.

22) 『退溪集』, 卷3, 「陶山雜詠[并記]」.

23) 『退溪集』, 卷2, 「紅桃花下寄金季珍[二首]」.

심었던 병든 객이 십 년 만에 돌아오니[栽花病客十年回], 늙은 나무 나를 맞아 마음껏 꽃 피웠네[樹老迎人盡意開]. 꽃을 향해 물었으나 꽃은 한마디 말이 없으니[我欲問花花不語], 비탄스러운 모든 일을 봄 술잔에 부치노라[悲歡萬事付春杯]”라고 하였다. 퇴계가 꽃과 나무에 대해 “꽃을 대하고 한 번 웃자 꽃이 내게 말하기를 [對花一笑花有語] 내지는 “꽃을 향해 물었으나 꽃은 한마디 말이 없으니[我欲問花花不語]”라고 읊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꽃이 퇴계에게 전하는 말, 그것은 “아아 그대를 밭을 가는 농부가 알맞겠구나[嗟爾合作耕田翁]”였고, 꽃이 퇴계에게 보였던 침묵, 그 의미는 십년 만에 돌아온 심신이 지친 병객에게 스스로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꽃(의 침묵)과 (늙은) 나무의 메시지, 그것은 ‘나-그것’이 아닌 ‘나-너’의 관계를 통해 수양공부를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세상을 소유와 박탈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각박한 현실에서 내 온 존재를 다 기울여 살아갈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²⁴⁾

퇴계는 1546년(명종 1) 낙동강 상류 토계(兔溪)의 동암(東巖)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산과 들, 구름과 학[山雲野鶴]을 벗 삼아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의 삶을 시작하였다. 토계(兔溪)라는 지명을 퇴계(退溪)로 고치고 이를 호로 삼은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²⁵⁾ 박종홍이 퇴계의 방법론, 그것도 방법여론을 통해 다

24) 고미숙,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2006, 173-174쪽 참조.

25) 1546년(명종 1)의 퇴계는 무척 힘든 시기였다. 1946년 3월 장인 권질(權蹟)이 사망하였고, 7월에는 권씨부인이 첫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였다. 이때 토계 상류에 양진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토계라는 개울 이름을 퇴계로 고치고서 자신의 호로 삼았다. 퇴계는 양진암에서 죽오 오언의(竹塢吳彦毅, 1494~1566)의 편지를 받고서 지은 시에서 “어설피게 엮어낸 암자

루었던 양호론은 사실상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을 일컫는다면 모를까, 그것이 개념적으로 근대일본교육학의 우산 아래에서 전개되는, 그것도 식민지 학교관리 차원에서 등장한 일본발 양호론을 염두에 둔 개념 설정이라면 이는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를 방치한 상태의 글쓰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박종홍이 퇴계의 양호론을 발표한 시점인 1928년을 전후로 한 일본 교육학계 및 교육현장의 양호론은 양호의 대상과 주제를 특정의 범위로 제한한 것이었다. 예컨대 1930년대 이후의 양호론은 당시 제시된 교원의 직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교

를 양진이라 이름 지었는데[草草開庵號養眞], 산에 둘러싸여 물에 임하고 있으니 정신을 기르기에 족하다[依山臨水足顧神]. 천 리 밖의 친구가 마치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故人千里如相識], 그가 보낸 편지에 먼저 쓴 양진이라는 두 글자가 새롭다[書面先題兩字新]”고 했다(『退溪集』, 續集卷1, 「養眞庵得吳仁遠書有養眞字因寄一絕」). 퇴계가 양진암(1546)에 머물다가 단양군수(1548)와 풍기군수(1549)를 지낸 이후의 상황도 양진의 뜻에 부합하는 건강상태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퇴계는 이를 1552년 9월 8일의 기록에서 “얼마 안 있다가 풍기군수를 그만두고[未幾去郡] 산 아래의 전원으로 돌아가[歸田於山下] 4년 동안 와병 중에 있었다[病臥四年]”고 말한 바 있다(『退溪集』, 卷43, 「周景遊清涼山錄跋」). 양진(養眞)의 의미는 목은 이색이 1380년(우왕 6)에 지은 글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무극의 진을 구비하고 있다[人之生既眞矣]”는 점을 전제하고, 양진은 “외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不誘於物]”을 의미하며, 『맹자』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養心莫善於寡欲]”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욕심을 적게 한다는 말을 진을 기르는 제일의로 삼을 수 있다[請以寡欲爲養眞第一義]”고 규정한 바 있다(『牧隱集』, 文藁卷3, 「養眞齋記」). 양진의 반대쪽 경우나 상황에 대해 이색은 사람들이 “지금은 사욕을 앞세워 끝없이 내달리는 까닭에[今也私勝而不已], 술수를 써서 서로 배척하는가 하면[用術以相傾] 간교한 꾀를 써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열을 올린다[用奸以自植]”면서, “이것이야말로 거짓을 행하는 것이니 나날이 졸렬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其作僞不曰日拙乎]”고 지적하였다(『牧隱集』, 文藁卷3, 「養眞齋記」).

원의 직무 중 학급에 속한 사무 내용은 크게 ① 아동에 관한 사무, ② 교실에 관한 사무, ③ 교수에 관한 사무, ④ 훈련에 관한 사무, ⑤ 양호에 관한 사무 등으로 구성되었다.²⁶⁾ 그리고 당시 교원의 사무는 자율적으로 구성·전개되지 못하였고, 그 전체적인 기조는 교사가 ‘자동축음기’에 비유될 정도로, 그저 교육·지도 사항을 반복 강조하는 데 머무는 존재에 불과했다.²⁷⁾ 이러한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여 논하자면, 박종홍이 퇴계의 교육사상 연구에서 다룬 양호론은 교육문제에 대한 주체적 성찰과 논의를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근대 일본교육학의 틀에 따라 소위 ‘퇴계의 양호론’을 주제로 한 무리한 조립 작업에 나선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에 들어, 특히 1941년부터 국민학교령에 따라 전개된 국민학교 교육에서 양호론은 ‘전쟁과 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활동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는 1872년 이래의 병학일여-군교일치의 구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게추가 교육에서 전쟁으로 옮겨가는 형국에서 주목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 양호훈도의 일반 집무사항은 신체검사, 국민체력검사, 위생훈련, 학교구급법, 질병 예방, 진료 보조, 아동 질병, 위생실 및 비품 관리, 건강상담 등이었다.²⁸⁾ 양호의 방법론

26) 高橋浜吉, 『師範教科 朝鮮學校管理法』, 東京: 日韓書房, 1936, 155-156쪽;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142-143쪽에서 재인용.

27) 『동아일보』 1933.10.14.;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143쪽에서 재인용.

28) 岡田道一, 『國民學校養護訓導必携』, 東京: 教育實際社, 1941; 岡田道一, 『養護訓導執務要項精義』, 東京: 明治図書, 1943.

은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연성(鍊成) 과정이었고, 그 목적은 황국의 도(國體の精華, 臣民の道)를 달성하는 데 두었다.²⁹⁾

퇴계가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의 기초를 잃지 않도록 수양 공부를 일삼았다고 한다면, 근대일본교육학에서 말하는 양호론은 제국주의·군국주의적 욕망에 따라 조립된 것으로, 당시 학교위생·학생건강의 목표는 사실상 예비전력의 확보 및 전쟁수행 능력의 극대화에 두었다. 당시 개인의 위생과 청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신체는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고, 이는 조선인의 신체를 개인의 것이 아닌 국가의 전쟁 동원을 위한 자원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⁰⁾ 박종홍이 퇴계를 통해 양호

29) 岡田怡三雄, 『日本国民教育学及教育史』, 東京: 敬文堂, 1942. 오카다 이사오(岡田怡三雄)의 1920년대의 글을 보면, 칸트의 교육론을 주제로 하여 (1) 칸트의 인류에 대한 견해, (2) 교육과 칸트철학과의 관계, (3) 교육의 임무, (4) 교육의 목적과 의의, (5) 교육상의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6) 양호, (7) 훈육, (8) 지육, (9) 덕육, (10) 학교론 등을 다루었다(岡田怡三雄, 『カントの哲学と現代の教育』, 東京: 中興堂, 1924). 1924년의 글에 비해 1942년의 글을 통해서, 오카다 이사오의 교육학에서 양호론이 황국민의 황국의 도에 이르는 과정[皇国民鍊成]에 목표를 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2년 시점의 황국의 도, 황국신민의 연성을 모토로 삼는 교육은 군국일본의 기만과 폭력을 한껏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런 마당에서 사회적 양호의 예화로 제시한 야누시 코르차크(Janusz Korczk, 1878~1942)에 대한 얘기는 다소 수상쩍은 면이 있다. 폴란드 출생 유대인 코르차크는 전쟁-아동-양호 문제에 대한 주요 사례로 꼽기도 한다(鈴木崇之, 『児童虐待時代の社会的養護』, 東京: 学文社, 2015). 코르차크는 1905년 6월 러시아 황실군대로 징병되어 하얼빈에서 복무하였으며 러일전쟁에도 참전하였다. 코르차크는 나치의 학살이 절정에 달했던 1942년 8월 6일 고아들과 함께 의연히 죽음의 수용소(트레블링카행 열차)로 향하면서 전설의 인물이 되었다. 코르차크는 아동인권 옹호의 선구자이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던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30) 김순진·정주미, 「조선총독부 편찬 '보통학교수신서'에 나타난 '신체적 규율」, 『일본어문학』, 33(1),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 349-368쪽. 퇴계의 양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면 이는 교사의 건강 문제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나, 애시 당초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식민교육 구상에 교사의 건강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³¹⁾ 교사의 건강 문제는 1930년대 이후에 뒤늦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교사의 건강 문제가 그대로 예비전력-잠재전력인 아동·학생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시작된 일이었다.

박종홍의 퇴계의 양호론에 대한 기술은 퇴계의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론을 일본근대 교육학의 욕망의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양호론’이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않는 한 ‘퇴계의 양호론’이라는 퇴계학에 대한 어색한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의 전전·전중의 교육학에서 양호론이 갖는 군국주의적 색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퇴계를 양호론의 틀에 집어넣는 방식의 무리수를 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경우처럼 식민적 욕망에 굴절·오염된 양호론이라면 곤란하다. 경우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퇴계는 일찍이 청량산의 여러 봉우리 이름이 모조리 불교 명칭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

호론이 당시 학교교육의 현실에서 갖는 성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도권 교육에서 양호론이 어떤 동력을 지녔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15년 전쟁(1931-1945) 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 추이를 갖고 말하자면, 당시 가장 큰 이슈이자 현격한 변화는 아동·학생의 신장 축소-체중 감소 문제였고, 결핵의 만연으로 인한 사망률은 통계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蔣昭三, 『十五年戰爭と日本の醫療』, 『15年戰爭と日本の醫學醫療研究會誌』, 1(1), 15年戰爭と日本の醫學醫療研究會, 2000, 1-17쪽.

31)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99-100쪽.

적하면서 “산의 여러 봉우리는[山之諸峯] 모두 불서의 황망한 말과 제불의 음혼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니[皆冒以竺書荒茫之語諸佛淫昏之號] 이것은 참으로 신선지구의 모욕이며 유학자들의 수치가 되는 것이다[斯固爲仙區之辱而吾輩之羞也]”라고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²⁾ 퇴계가 양심·양기·양성·양생·양진론을 양호론으로 덮어쓰기하는 상황을, 그것도 그 양호론을 통해 일본의 전쟁욕망을 뒷받침하는 현실을 목도하였다면, 아마도 퇴계는 그 모욕과 수치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3.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자론 연구 비판

박종홍은 퇴계의 교육사상 연구, 그 중에서도 방법여론을 다루면서 양호론과 함께 교육자론이라는 논의의 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자는 교사-교원이라는 말보다는 넓은 의미 영역을 갖는 개념이지만, 어떤 명칭을 사용하건 식민권력에 복무하는 그들은 민족의식이나 국가의 독립과 같은 거대담론을 보여주기 어려운 처지의 존재들이었다. 교육자로서의 직업 특성상 그들은 존재 자체가 식민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민족과 국가를 연상하면 할수록 자아정체성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³³⁾ 교수법-교육방법을 강조했던 당시에, “일본어가 곧 교육

32) 『退溪集』, 卷43, 「周景遊清涼山錄跋」.

33) 당시 피지배민족의 현실과 빼앗긴 국가의 현실 앞에서 온전한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종홍의 퇴계학 논문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교남고보(현 대륜고등학교) 교사 이상화(1901~1943)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開闢』 70, 1926.6.)는 당시의 민족-국가에 대한 차가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짚은 것이었다. 식민지

자”라고 규정했던 그 음험한 논리 앞에서, 당시의 교육은 교육이라고 불릴만한 규범적·인지적·방법적 준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³⁴⁾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자론에 대한 기술 역시 이러한 식민교육의 시공간을 벗어난 어떤 진공상태의 교육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실체는 응당 거대담론이나 교사의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묻는 작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러한 교사론의 배경과 흐름에 유의하는 가운데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 성과, 그 중에서도 교육자론에 대한 논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평생 지근거리에서 스승을 모셨던 월천 조목은 스승 퇴계의 학문과 인격과 덕망을 표상하여 “선사께서 살아계실 적에[先師之在世] 도덕과 문장이[道德文章] 동방을 대표하는 해와 달이었고[爲東方之日月], 사람을 대표하는 산악이었고[爲士林之山嶽], 나라를 대표하는 원로였다[爲國家之耆龜]”고 기술하였다.³⁵⁾ 제문에서는, 교육자 퇴계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조금씩 학문을 쌓아[銖寸積學] 자나 깨나 성리학에 전념하였다[寤寐濂洛]”는 점, “도에

조선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대한 감옥에서 감옥살이하는 것이었다(민족문제연구소 편,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10). 그 때 유독 식민교육 종사자들은 식민권력에 대해 비판의 언어를 드러내지 않고 비난의 칼끝을 조선과 조선인을 향해 겨누었다. 조선인 민족성담론이라는 기만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유행했던 것도 식민지교육의 민낯을 보여준다.

34) “일본어=교육자”론이라는 음험한 논리에 대해서는 이·콘스쿠, 『「國語」という思想: 近代日本の言語認識』, 東京: 岩波書店, 1996 참조. “일본어=교육자”론에 앞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1894년에 제시한 “청일전쟁=교육론” 내지 “청일전쟁=교육가”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5) 『月川集』, 卷6, 「祭李逢原[安道]文」.

나아가는 정성이[進道之誠] 연로할수록 더욱 독실하였다[老而彌篤]”는 점, “이치와 의리에 융합되고 정밀하여[理融義精] 이미 고명한 경지에 나아갔다[既造高明]”는 점, “겸손한 덕으로 자신을 더욱 낮추었으며[愈撝謙德] 이러한 삶의 자세는 종신토록 계속되었다[不已不止]”는 점 등을 기렸다.³⁶⁾ 박종홍은 퇴계의 교육사상 연구에서 방법여론의 이름으로 양호론과 교육자론을 제시하였지만, 교육자론이야말로 퇴계학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박종홍이 제시한 퇴계의 교육자론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자발적인 자학·자습·자율적인 수련을 쌓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스승의 지도를 배제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사(假使) 이러한 태도만으로 일관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인간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 과연 선인(先人)보다도 진보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의문이다. 적어도 모든 문화의 발전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퇴계 자신 어려서 학(學)에 뜻을 두었으나 좋은 사우를 얻지 못하여 해매인 지 수십 년에 어떻게 시작하여야 될 것인지조차 몰라 공연히 고심탐색(苦心探索)만 거듭하여 밤새 정좌(靜坐)한 채 자지않다가 심병(心病)을 얻어 학(學)을 폐(廢)한 일이 있었다 하여 사우의 지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퇴계의 겸사라고도 하겠으나 그의 교육사상에 있어서 교육자론이 차지할 의의가 짐작된다고 하겠다(『언행록』 권1 「학문 김성일기」).³⁷⁾

36) 『月川集』, 卷6, 「祭退溪先生文[辛未]」.

37)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VI』, 서울: 민음사, 1998, 154-155쪽.

② 그러면 교육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교육자라지만 그도 학문을 하는 사람이요 학문은 본래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나,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동안에 마치 심산무림(深山茂林) 속의 난초(蘭草)가 훈향(薰香)을 풍기듯이 저절로 감화를 그 주위에 미치는 것이다. 즉 교육자의 취할 바 태도는 자기자신의 수양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언행록』 권1 「교인 이덕홍기」).³⁸⁾

③ 피교육자에 대한 태도는 먼저 그 뜻의 향하는 바를 보고 그 개성의 차이를 따라 취하되 입지(立志)와 근독(謹獨)으로 기질(氣質)의 변화를 피하도록 한다. 도에 뜻함이 성독(誠篤)함을 보면 이를 기뻐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도록 권장하고 해이(懈弛)하거든 이것을 근심하여 격려하되 두고두고 간곡하게 교도하기를 하나같이

38)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Ⅵ』, 서울: 민음사, 1998, 155쪽. 박종홍이 교육자의 취할 바 태도는 자기 자신의 수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든 예화는, 퇴계의 나를 갈고 닦고 가꾸고 다듬는 공부, 위기지학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퇴계는 공자의 위기지학(『論語』, 第14, 「憲問」)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난초의 비유를 들면서, 그것은 “마치 깊은 산 울창한 숲속의[如深山茂林之中] 한 포기 난초가[有一蘭草] 하루 종일 향기를 풍기면서도[終日薰香] 스스로 그것이 향기인 줄 모르는 것과 같다[而不自知其爲香]”고 설명하였다(『良齋集』, 卷5, 「溪山記善錄上[記退陶老先生言行]」). 이처럼 난초는 위기지학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쓰였으나, 본래 난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한 벗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주역』에서는 “마음이 같은 사람의 말은[同心之言] 그 향기가 난과 같다[其臭如蘭]”고 하였다(『周易』, 卷3, 「繫辭上傳」), 『공자가가어』에서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與善人居] 지초-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如入芝蘭之室]. 오래도록 그 향기는 못 맡더라도[久而不聞其香] 이에 동화된다[卽與之化矣]”고 하였다(『孔子家語』, 卷4, 「六本」). 『승정원일기』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바른 일과 바른 말만을 보고 듣게 한다면[朝夕寓目於正事正言之間] 지초-난초의 향이 사람에게 스며드는 것처럼[必如芝蘭襲人] 날마다 자신도 모르게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日與遷化而不自知也]”고 하였다(『承政院日記』 1737年(英祖 13) 3月 6日).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때 듣는 자로서 감분(感奮)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교육자의 이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퇴계 자신이 몸소 실천공행한 일이다. 교육자는 그저 사도(師道)로서 자처하여 스스로 초연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피교육자의 참된 반려가 되어 그의 충정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언행통록』 권1 「언행통술 정유일찬」/『언행록』 권1 「교인 김성일기」). 이것이 나의 천성의 선함으로 미루어 천하의 영재를 교육하여 모두 착하게 함이다(『문집』 권7 「서명고증강의」). 이러한 신념으로 후학을 훈화하여 불염(不厭)-불권(不倦) 일생을 바친 것이 교육자로서의 퇴계 자신이었던 것이다.³⁹⁾

인용 ①(김성일기)에서는 자학·자습·자율적인 수련을 쌓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승의 지도를 배제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퇴계가 좋은 사우를 얻지 못하여 수십 년을 헤맸던 사실을 보더라도 학문의 세계에서 사우의 지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인용 ②(이덕홍기)에서는 퇴계가 그랬듯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지학, 자기자신의 수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였다. 인용 ③(정유일찬/김성일기)에서는 피교육자가 입지와 근독을 돈독히 하여 기질의 변화를 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교육자의 해이한 태도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교도하여 그들이 감분할 때까지 잘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자는 그저 사도를 자처하면서 초연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39)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VI』, 서울: 민음사, 1998, 155-156쪽.

피교육자의 참된 반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것이 후학을 훈회하여 불염-불권의 열정을 바쳤던 교육자 퇴계의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자론은 퇴계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정확하게 형용한 것일까. 1920년대 식민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길을 걸었던 박종홍의 전이해·선입견이 은연중에 퇴계의 교육사상 논의에 가미된 요소는 없었을까. 퇴계학 본연의 모습을 굴절시키는 과도한 색조화장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④ 퇴계가 교육자로서 추앙되는 가장 훌륭하였던 점은 무엇인가? 순수한 교육애의 화신(化身)으로서 천생의 교육자였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칠순이 넘은 노령으로 속환은 날로 심중하여 기력마저 형편없이 쇠약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요불굴 그야말로 폐이후이(斃而後已)의 의기로써 끝끝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사수(死守)한 것이다.⁴⁰⁾

⑤ 멀리서 찾아온 학인들을 각기 심천에 따라 정성껏 이끌고 불들어 계발하기에 전심한 그의 숭고한 희생적 정신은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일관되어 다함이 없었다. 노쇠로 허탈하여진 몸을 이끌고 거의 실신(失神)의 경지에서 헤매면서도 이를 곁에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여러 문도들의 내중(來從)을 사절할 수 없었던 퇴계의 충정을 생각해 보라. 앞으로 한 달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 중환(重患)에 시달리는 몸이었건만, 평일과 조금도 다름없이 강론을 계속한 그의 교육적 열성을 어찌 위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랴(『언행록』 권1 「교인 김성일기」).⁴¹⁾

40)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Ⅵ』, 서울: 민음사, 1998, 127쪽.

41)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Ⅵ』, 서울: 민음사, 1998,

인용 ④와 ⑤는 칠순 노령 퇴계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퇴계 당시의 스승상을 그리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퇴계의 교육자론은 그의 공부론에서 강조했던 신고적누공부와 우유함영공부를 바탕으로 삼아 전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자론에 대한 기술에서는 신고적누공부만 있을 뿐, 우유함영공부가 빠져있다. 박종홍이 교육자 퇴계에 대해 “순수한 교육애의 화신(化身)으로서 천생의 교육자”, “불요불굴 그야말로 폐이후이(斃而後已)의 의기로써 끝끝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사수(死守)”, “정성껏 이끌고 붙들어 계발하기에 전심한 숭고한 희생적 정신” 등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한 것은 유교사상 일반의 교사론에 입각한 논점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한 형용이자 어울리지 않는 어법임이 분명하다. 메이지일본의 사범교육학에서는 “우유(優遊)는 교육자의 본분이 아니다”⁴²⁾거나 “교육자는 모름지기 그 본분을

127-128쪽. 박종홍이 퇴계의 교육자론을 기술하면서 퇴계의 죽음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를 끌고간 것은 교육자론의 구성 과정에서 극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570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퇴계의 병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손자 이안도와 제자 이덕홍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방증과 부연은 박균섭, 「고종기를 통해 본 퇴계의 인격」, 『퇴계학과 유교문화』, 4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73-98쪽 참조.

- 42) 東洋學人, 「優遊は教育者の本分に非ず」, 『教育報知』, 511, 東京: 東京教育社, 1896, 5-5.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궁리와 성찰은 각고공부[刻苦用工]·신고공부[辛苦工夫]·적누공부[積累工夫]·신고적누공부[辛苦積累之功]에 해당한다(『退溪集』, 卷28, 「與金而精」, 卷35, 「答李宏仲[德弘/辛酉]」, 「答李宏仲」, 卷37, 「答李平叔」). 궁리와 성찰로 인해 피폐해진 심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유자적하면서 자연세계를 완상하는 일은 함영공부(涵泳工夫)·우유함영(優遊涵泳)의 공부에 해당한다(『

다해야 한다”⁴³⁾는 기조에 따라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교육자”, “붉은 피가 뛰는 교육자”, “교사다운 부동심”을 지닌 “교육애에 불타는 교육자”의 모습을 기대하였다.⁴⁴⁾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자

退溪集, 卷14, 「答南時甫[彦經/丙辰][別幅]」, 卷35, 「答李宏仲[乙丑]」, 卷37, 「答李平叔」). 다산 정약용은 퇴계의 우유함영공부법을 논하면서 “우유함영공부법은 매우 신묘한 것이지만[其于優游涵泳之方極是神妙], 만일 방탕하고 안일한 마음 상태에서 이 공부법을 쓰면[然若於放蕩宴佚之時亦用此法] 전혀 검속하고 수렴하는 유익이 없다[則全無檢束收斂之益]”고 지적하면서 각고공부법을 통해 사욕을 극복하는 엄밀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음과 정신이 번잡 초조하고 혈기와 신체가 쓸쓸하고 조급한 때에 우유함영공부법을 쓰면, “늦추고 죄며 펴고 움츠리는 것이[庶乎弛張舒蹙] 서로 달려가 구제하게 되어[互相奔掙] 음양과 한서를 한 가지라도 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如陰陽寒暑之不可偏廢也]”고 설명한 바 있다(『與猶堂全書』, 詩文集卷22, 「陶山私淑錄」). 이처럼 신고적누공부가 언어의 세계, 문화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유함영공부는 침묵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이다. 이 같이 성리학에 말하는 신고적누공부와 우유함영공부는 상호이질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최진덕, 「퇴계 성리학의 자연도덕주의적 해석」, 김형호·최진덕·정순우·손문호·심경호,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41-236.]. 퇴계의 공부론에서는 항상 이런 두 가지 상이한 계열의 공부가 교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성립한다. 이는 퇴계의 교육자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이상은 박근섭, 「퇴계철학의 교육학적 해석: 공부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8(2), 한국교육개발원, 2001, 104-105쪽 참조.

- 43) 岩田榮作, 「教育者は須らく其の本分を尽すべし」, 『教育報知』, 584, 東京教育社, 1898, 19-20쪽.
- 44) 박종홍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의 『선의 연구』(西田幾多郎, 『善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21)를 출발로 하는 교토학파의 교육철학, 그 핵심은 바로 교육애였다. 그들이 교육애를 강조한 의도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었다. 교토학파의 고야마 이와오(高山岩男)는 교육애의 반대 사례로서, 전후 일본의 “선생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칭하고 투쟁에 밤을 새우고 있던 전후의 세대”를 지적하였고, 전후의 “학생과 교사의 사이를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거나, 한 단 높은 교단에 서는 것은 민주적 평등에 위배된다고 하여 교단을 없애버리기도 하였고, 차별을 없애는 민주교육에서 성적의 평가를 모두 똑같이 하

론에 대한 설명방식과 양상은 이처럼 일본 근대교육학 및 사범 교육론에서나 어울릴 법한 수사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⁵⁾

퇴계의 제자 교육의 성격을 정리하자면, 그는 스스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학자의 모습을 지닌 스승이었으며, 그의 모습에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스승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을 질정하였고, 제자의 나쁜 태도에 대해 돌려 말하지 않고 거침없이 지적하는 엄한 스승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제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온화한 가르침을 폈으며, 제자들의 공부에 대한 해석과 견해가 지나치게 과감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자신의 수양과 실천의 중요성이라는 학문의 기본 자세를 가다듬도록 지도했으며, 학문과 성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때로는 날카롭게 꾸짖고 때로는 부드럽게 이끌었던 스승이었다.⁴⁷⁾ 퇴계는 후학들이

는 것이라고 한 것이라든지, 교사의 봉급을 애써서 임금이라고 부른다는 지, 산업노동자와 똑같은 쟁의행동으로 나와, 교사에게 어울리지 않은 언동으로 나오게 되고, 교육의 대전제인 신뢰관계 같은 것은 일고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풍조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하고, “나는 대전쟁의 패전이라든가 패배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군사상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 패배에까지 이른 두려워할 만한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게끔 강요된 것으로 느꼈던 것”이라고 기술하였다[高山岩男, 『教育哲学』, 東京: 玉川大学出版部, 1976. 한기언 역, 『교육철학』, 서울: 교학연구사, 1981, 373-375쪽]. 전후일본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전전·전중의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었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45) 中野八十八, 『毎週反省教育教授新計画の實際』, 東京: 章華社, 1926, 1-10쪽, 479-486쪽.

46) 홍인숙, 「시간을 통해 본 퇴계의 스승으로서의 면모와 그 의의」, 『퇴계학논집』, 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90-120쪽.

47) 홍인숙, 2012, 97-117쪽.

가르침을 청하면 서로 더불어 묻고 답하기를 종일토록 하여도 피곤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병환이 있어도 가르침을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제자들과의 만남을 청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그가 스스로 스승이기를 거부한 것은 쉽게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하던 당시 세태에 대한 일침이기도 했다.⁴⁸⁾ 그러했던 퇴계의 교육자론 내지 교육자로서의 모습에 대해, 박종홍이 “교육애의 화신”, “천생의 교육자”, “불요불굴 그야말로 폐이후이의 의기”, “끝끝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사수”, “숭고한 희생적 정신” 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기술한 것은 당시 식민권력의 교사상 및 교육자론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식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종홍의 교육자론은 1920년대 초반의 경성사범학교장 아카기 만지로(赤木萬二郎)가 스승의 도에 대해 논하면서, 교육직어의 정신과 일시동인의 큰마음이 학교 생도 교양의 방침이라고 했던 발언과 사실상 범주와 궤적을 같이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⁹⁾ 아카기 만지로가 교사론의 확립 차원에서 퇴계의 성학 도통을 주목한 것도 퇴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식민권력의 욕망 실현에 더없이 효과적인 소재였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⁵⁰⁾ 이로

48) 안경식, 『『언행록』에 나타난 퇴계의 제자 교육』, 『석당논총』, 3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2, 119쪽.

49) 赤木萬二郎, 『師道』, 『經學院雜誌』, 23, 經學院, 1922, 64-69쪽; 변은진 외 편, 『『경학원잡지』의 주요 강설』(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 07), 서울: 선인, 2021, 175-178쪽.

50) 赤木萬二郎, 『朝鮮에 在한 聖學의 道統: 李退溪先生을 憶함』, 『經學院雜誌』, 30, 經學院, 1929, 57-70쪽; 변은진 외 편, 위의 책, 260-275쪽.

씨 보면, 식민권력에 의해 굴절된 유교학에서 교사론의 본질로서의 학습지도의 책무, 인격형성의 책무, 사회적 책무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가 갖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계망과 자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퇴계학, 그것도 퇴계의 교육자론을 구성했다는 점일 것이다.

박종홍은 교육자 퇴계의 교육에 대한 평생의 열정을 형용하기 위해 ‘폐이후이(斃而後已)’의 의기를 강조하였다(인용 4). 그런데 ‘폐이후이’라는 말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가르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나 태도로 규정했다는 것은 유교일반의 논점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자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엇박자는 교육자의 책무와 사명을 무한 책임으로 강조했던 메이지시대 이래 변형된 해석의 한 양상으로 인한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을 향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폐이후이’가 근대 일본교육학 및 사범교육론의 성립 과정에서 교육자의 열정과 각오를 표상하는 용법으로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폐이후이’라는 말의 출전을 보면, 공자는 『시경』의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高山仰止] 큰길을 걸어가도다[景行行止]”⁵¹⁾라는 말에 대해 “시에서 인을 좋아함이 이와 같도다[詩之好仁如此]. 도를 향하여 가다가 중도에 쓰러질지언정[鄉道而行中道而廢], 몸이 늙음도 잊고 살아갈 해수가 부족함도 알지 못하여[忘身之老也不知年數之不足也] 열심히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서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俛焉日有孳孳斃而後已]”고 하였다.⁵²⁾ 물론 퇴계도 ‘폐이후이’라

51) 『詩經』, 卷5, 「車輦」.

52) 『禮記』, 第32, 「表記」.

는 말을 평생에 걸친 수양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제자 성재 금난수(惺齋 琴蘭秀, 1530-1604)에게 보낸 답장편지에서 그의 공부가 아직도 세속의 이익을 탐하는 병통이 남아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진실로 마땅히 공부에 십분 힘써야 한다[固當十分用功]. 진실로 「학기」편에서 말했듯이 날마다 힘써서[眞如學記所謂俛焉日有孳孳] 죽은 뒤에 그만 두어야 한다[斃而後已]”고 지적하였다.⁵³⁾ 위의 편지의 핵심은 공부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자기활동과 자기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는 데 있다. 이는 박종홍식의 “끝끝내 교육자로서의 사수해야 할 본분”을 말한 게 아니다. 박종홍의 교육자론은 식민적 욕망에 의해 굴절된 교사 중심-교사 주도의 교육을 상정한 것으로 퇴계의 공부론이 갖는 본연적 지향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근대 일본교육학 및 사범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자론은 유교에서 그 연원을 가져오면서도 일본식으로 변형된 유교 논리를 장착하여 교사론을 구성한 것이기에 일본적 욕망의 크기만큼 그들은 경성과정(硬性過程)-연성교육(鍊成教育)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근대일본의 관변학자들이 유교를 재구성하면서, 노력 방향의 사상(周公, 孔子)과 노력하지 않는 방향의 사상(黃帝, 老子)을 나누고, 특히 후자에 대해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나태

53) 위의 글은 1570년, 퇴계의 제자 금난수가 아들 셋과 함께 용수사(龍壽寺: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龍頭山 소재 사찰)에 들어가 공부할 때, 퇴계가 보낸 답장편지에 나오는 말이다. 퇴계는 금난수의 공부가 아직 세속의 이익을 탐하는 병통이 남아 있다고 경계하였다(『退溪集』, 卷36, 「答琴聞遠[庚午]」). 퇴계가 위의 편지글에서 인용한 「학기」편은 「표기」편에 대한 오류이다. 이는 『禮記』, 第18, 「學記」, 第32, 「表記」 참조.

해지는 기풍으로 흐른다는 점, 근로를 천하게 여겨 세상일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⁴⁾ 박종홍은 퇴계의 교육사상 연구, 특히 교육자론의 구성 과정에서 근대 일본교육학 및 사범교육론의 어법과 문법, 식민적 욕망의 법칙에 따른 교사론을 강력히 설파했다. 식민권력에 복무하는 교육자들, 노력하지 않는 방면의 사상영역에 대한 편견을 갖는 자들에게 노력 방면의 사상, 노력이 갖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다.⁵⁵⁾

박종홍은 퇴계의 교육자론을 통해 교육자의 책무와 사명감을 말하고 있으나 그 논의가 액면 그대로 퇴계의 교사론을 형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박종홍의 교육학 공부 내지는 사범교육학의 범주는 메이지시대 이래의 일본적 욕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시 교사들이 지역사회의 유지들과 다를 바 없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행세했던 것은 식민권력의 의도에 맞춤형 반응을 보인 대가이기도 하였다.⁵⁶⁾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학무국은 항상 조선의 저항·불순·불온세력을 주시하는 가운데, 일시동인·내선일체 이데

54) 今井彦三郎, 「周公孔子之道」, 『經學院雜誌』, 23, 經學院, 1922, 69-74쪽.

55) 식민권력의 입맛에 맞춰 식민교육을 실천하는 자들의 사상권역·사고구조 안에는 신교(身敎)=불언지교(不言之敎)=무위이화(無爲而化)의 사상, 그 보이지 않는 교육의 강한 교육력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성찰과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신교=불언지교=무위이화의 사상이 사유력 강화의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박혜순, 「사유력 강화의 방법론, 불언지교」, 『한국학』, 1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197-231쪽 참조.

56)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82쪽.

올로기에 반하는 불령선인을 색출, 발본색원하는 일에 강박적으로 나섰다.⁵⁷⁾ 그 식민정책적 배경을 소급하여 보면,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는 학교장강습회(1913.4.14.)에서 공립보통학교 ‘교장제군’을 향해 지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조선의 무수한 청년들이 “선량한 국민의 성질”과 “선량한 국민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교화에 나설 것을 강조하였다.⁵⁸⁾ 이는 선량한 국민의 성질과 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조선인은 불령선인이라 비국민임을 분명히 한 것이자, 그들에 대한 지도에 나서는 당시 교사들의 사회·교육·교화 활동은 그 자체로서 교직의 식민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식민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통한 교육공적 쌓기 작업은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순응성을 높이기 위한 폭력성과 반민족성을 띤 것이었고, 이는 당시 교사들이 학식과 덕망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데 족쇄로 작용하였다.⁵⁹⁾ 1920년대의 조선인 학생들의 백지동맹, 동맹휴학, 맹휴투쟁은 교육자들이 사도를 운위하거나 자처하면서 초연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사명감과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이 감분할 때까지 간곡하게 교화·교도해야 할 사안이었다.⁶⁰⁾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조선의 청년·학도가 민족

57) 김태웅, 『신식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과주: 서해문집, 2017, 333-334쪽, 339쪽.

58) 『대한매일신보』 1913년 4월 16일 「학교장강습회」; 김태웅, 『신식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과주: 서해문집, 2017, 333쪽에서 재인용.

59) 김광규, 「조선의 ‘교육효적자(教育效積者)’: 식민권력이 표창한 모범교원들」, 『한국교육사학』 42(1), 한국교육사학회, 2020, 23-60쪽.

60)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학생들의 백지동맹, 동맹휴학, 맹휴투쟁은 학생관 불령선인의 행동목록이었다[森五龍生, 「教育界の不幸事件を聞いて」, 『文教の朝鮮』 1927年 10月號, 朝鮮教育會, 1927, 88-89쪽

과 국가에 대한 거대담론을 일삼지 못하도록 직업교육-노작교육-사상문제에 대한 연계 지도·선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⁶¹⁾

박종홍이 퇴계의 양호론에 이어서 교육자론을 피력하면서 퇴계의 평생을 괴롭혔던 심병(心恙=心病)에 대해, 그것이 좋은 사우를 만나지 못한데다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병이라고 기술했던 점은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식민권력과 그 주구세력은 퇴계의 심병(사우를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마음의 병)을 난데없는 조선인의 심병(경의 결여 상태)으로 치환하여 조선인의 심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양약은 바로 퇴계의 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식으로 식민지 욕망의 어법을 작성해냈다. 식민권력의 자장 안에서 퇴계의 교육사상을 연구하다보면, 이처럼 퇴계학의 정체성을 일그러트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엄밀한 경계와 성찰과 비판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퇴계학의 오독과 퇴계의 모독은 계속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과제와 전망

참조]. ‘불령선인=비국민’론은 1920년대에 들어 자가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전후하여 조선인 학생을 불온시하는 눈빛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 일에는 주로 교육자들이 앞장서야 했다.

- 61) 직업교육-노작교육-사상문제의 계열성·연관성을 고려한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學務局朝鮮教育會, 『文教の朝鮮』 1931年 6月号(職業教育特輯号), 1931年 10月号(勞作教育概論特輯号), 1931年 11月号(思想問題特輯号)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식민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식론적 폭력의 단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박종홍의 퇴계 연구, 특히 양호론과 교육자론에 대한 연구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장을 마련한 것은 식민교육체제의 기만과 폭력, 그 실체를 폭로하는 가운데 교육의 본질, 교육학의 본연을 성찰하기 위함이었다. 식민교육체제가 작동되는 공간에서, 퇴계를 정점으로 한 유교야말로 융화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박종홍은 전남 보성공립보통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대구 수창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28년에 퇴계의 교육사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안에서 특히 양호론과 교육자론을 방법어론으로 분류·제시하면서 퇴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종홍은 일제강점기 공공교육이라는 장 속에서 일본의 보수적인 민족문화론을 근대의 의미체계로 받아들였는바, 그의 근대 교육 관련 구상은 비판적인 차원을 심하게 결여한 것이었고, 그것도 근대 이전의 사상, 유교성리학에 대한 탈역사화를 통한 미화작업의 산물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⁶²⁾ 퇴계의 교육사상이 교육칙어를 근간으로 한 일본정신의 주입·침투 과정에서 매우 적절한 융화 자료 겸 교육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배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계의 소환과 동원은 청일전쟁 이래 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퇴계를 거론했던 그 맥락과 의도

62) 박노자, 「박종홍 철학: 민족과 근대, 종속과 주체성 사이에서」, 『동서인문』, 10,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8, 107-128쪽.

를 철학일반-교육사상의 범주 전체를 펼쳐놓고 판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교원양성제도를 직접 관할 하면서 일본 교원을 중심으로 황민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인 교원 수를 점점 늘려가는 가운데, 교원양성체제는 상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며 국책 과제를 순순히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⁶³⁾ 이는 퇴계의 양호론과 교육자론을 해석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고 유의할 부분이다. 식민지 일본은 피식민자인 조선인들에게 윤리·철학·사회·정치·경제 등 여러 장면에 걸쳐 국가이념을 서술하고 반복하여 교육하였으며, 일본의 <사범학교령>에서 강조했듯이 조선의 교사들에게도 ‘순량’, ‘신애’, ‘위중’의 세 가지 덕목을 교원의 자질로 요구하였다. 그것이 조선인 모두를 순종적인 조선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범학교수신서』에 제시된 교사상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존경받는 전통적인 교사가 아니었으며, 식민지정책 하에서 교사는 국가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게다가 국민을 총량한 황국민으로 동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⁶⁴⁾ 박종홍이 제시한 퇴계의 양호론과 교육자론은 이처럼 교육학의 식민성, 교사론의 기만성을 문제 삼지 않는 가운데 논의를 이어간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박종홍에 의한 퇴계 연구, 그에 의해 구축된 퇴계의 양호론과 교육자론은 근대 일본교육학의 틀에 갇힌 채, 식민교육의 시선으

63) 김순전·사회영, 「식민지하 교사양성과 『사범학교수신서』 연구」, 『일본어문학』 36,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 159-186쪽.

64) 위의 논문.

로 퇴계의 철학·사상·교육을 응시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퇴계학의 정체성은 굴절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주체적이지 못한 한국 교육학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했다. 박종홍의 퇴계 교육사상 연구가 향후 퇴계학의 정체성 탐구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퇴계학 연구에 드리워진 식민지 사범교육론의 장막을 걷어내는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다. 퇴계 연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근대 한국 교육의 속성, 그 단층/단절지대를 제대로 논구하는 작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詩經』

『禮記』

『孔子家語』

『近思錄』

『牧隱集』

『退溪集』

『月川集』

『艮齋集』

『與猶堂全書』

『承政院日記』

한국문집총간(<http://www.itkc.or.kr>) [한국고전번역원]

고미숙,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2006.

고성애, 「박종홍 철학의 형성과정 연구: 경성제국대학 입학 이전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김광규, 「조선의 ‘교육효적자(教育效積者)’: 식민권력이 표창한 모범교원들」, 『한국교육사학』, 42(1), 한국교육사학회, 2020.

김순전·사회영, 「식민지하 교사양성과 『사범학교수신서』 연구」, 『일본어문학』, 36,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

김순전·정주미, 「조선총독부 편찬 ‘보통학교수신서’에 나타난 ‘신체적

- 규율’, 『일본어문학』, 33(1),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
- 김태웅, 『신식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파주: 서해문집, 2017.
- 민족문제연구소 편,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10.
- 박근섭, 「퇴계철학의 교육학적 해석: 공부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8(2), 한국교육개발원, 2001.
- 박근섭, 「고종기를 통해 본 퇴계의 인격」, 『퇴계학과 유교문화』, 4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 박근섭, 「박종홍의 「퇴계의 교육사상」(19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철학·사상·문화』, 34,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0.
- 박노자, 「박종홍 철학: 민족과 근대, 종속과 주체성 사이에서」, 『동서인문』, 10,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8.
- 박종홍, 「퇴계의 교육사상」, 『박종홍전집 I』, 서울: 민음사, 1998.
- 박종홍, 「독서회상: 내가 철학을 하기까지」, 『박종홍전집 VI』, 서울: 민음사, 1998.
- 박혜순, 「사유력 강화의 방법론, 불인지교」, 『한국학』, 1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변은진 외 편, 『『경학원잡지』의 주요 강설』(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 07), 서울: 선인, 2021.
- 최진덕, 「퇴계 성리학의 자연도덕주의적 해석」, 김형효·최진덕·정순우·손문호·심경호,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안경식, 「『언행록』에 나타난 퇴계의 제자 교육」, 『석당논총』, 3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2.
- 홍인숙, 「서간을 통해 본 퇴계의 스승으로서의 면모와 그 의의」, 『퇴계학논집』, 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 尹健次, 『朝鮮近代教育の思想と運動』,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2. 이명실·심성보 역,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서울: 살림터, 2016.
- 赤木万二郎, 「師道」, 『経学院雑誌』, 23, 経学院, 1922.
- 赤木万二郎, 「朝鮮에 在한 聖學의 道統 李退溪先生을 憶함」, 『経学院雑誌』, 30, 経学院, 1929.
- 蒔昭三, 「十五年戦争と日本の医療」, 『15年戦争と日本の医学医療研究会会誌』, 1(1), 15年戦争と日本の医学医療研究会, 2000, 1-17.
- 今井彦三郎, 「周公孔子之道」, 『経学院雑誌』, 23, 経学院, 1922.
- イ・ヨンスク, 『「国語」という思想: 近代日本の言語認識』, 東京: 岩波書店, 1996.
- 岩田栄作, 「教育者は須らく其の本分を尽すべし」, 『教育報知』, 584, 東京: 東京教育社, 1898.
- 岩部撓, 『文検教育勅語・戊申詔書・国民精神作興詔書解義: 附・朝見式勅語・国際聯盟離脱詔書謹解』, 東京: 啓文社書店, 1934.
- 岡田怡三雄, 『カントの哲学と現代の教育』, 東京: 中興堂, 1924.
- 岡田怡三雄, 『日本国民教育学及教育史』, 東京: 敬文堂, 1942.
- 岡田道一, 『国民学校養護訓導必携』, 東京: 教育実務社, 1941.
- 岡田道一, 『養護訓導執務要項精義』, 東京: 明治図書, 1943.
- 大谷尚子, 「わが国における「養護」という言葉の使われ方について」,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誌』, 4(1),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 2001.
- 高山岩男, 『教育哲学』, 東京: 玉川大学出版部, 1976. 한기인 역, 『교육철학』, 서울: 교학연구사, 1981.
- 杉浦守邦, 「養護教諭はどうしてこの名が付いたか」,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誌』, 5(1), 日本養護教諭教育学会, 2002.
- 鈴木崇之, 『児童虐待時代の社会的養護』, 東京: 学文社, 2015.

- 高橋浜吉, 『師範教科 朝鮮学校管理法』, 東京: 日韓書房, 1936.
- 立柄教俊, 『国民教育原理实用教育学』, 東京: 黒目書店, 1914.
- 椿真太郎, 『訓導必携』, 東京: 養護研究会, 1938.
- 寺崎昌男・「文検」研究会 編, 『「文検」の研究: 文部省教員検定試験と戦前教育学』, 東京: 学文社, 1997.
- 東洋学人, 「優遊は教育者の本分に非ず」, 『教育報知』, 511, 東京教育社, 1896.
- 中野八十八, 『毎週反省教育教授新計画の実際』, 東京: 章華社, 1926.
- 西田幾多郎, 『善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21.
- 波多野貞之助, 『教育学: 附・学校管理法』, 東京・大阪: 宝文館, 1907.
- 平良恵路・富田義雄, 『文検修身科教科委員の思想研究』, 東京: 大同館書店, 1934.
- 藤井利誉 編, 『女子師範教科 教育学』, 東京: 黒目書店, 1910.
- 三浦藤作, 『教育大意講義: 附・教育史大意』, 東京: 大同館書店, 1925.
- 溝淵進馬, 『教育学講義』, 東京: 富山房, 1909.
- 森五竜生, 「教育界の不祥事件を聞いて」, 『文教の朝鮮』, 1927年 10月号, 朝鮮教育会, 1927.
- 森岡常蔵, 『教育学精義』, 東京: 同文館, 1906.
- 森隼三, 『一日の教育』, 東京: 宝学館, 1920.
- 森五竜生, 「教育界の不祥事件を聞いて」, 『文教の朝鮮』, 1927年 10月号, 朝鮮教育会, 1927.
- 湯本武比古・中沢忠太郎 編, 『教育学教科書』, 東京: 開発社, 1910.

ABSTRACT

Critique of Park Jong-Hong's Research on Toegye Studies: Coloniality of the Discourse on Nursing and Educators

Park, Kyoong-S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t can be said that Park Jong-Hong's study of Toegye's educational thought conducted in 1928, a relatively early period,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identity and status of Toegye Studies. However, Park Jong-Hong who served in colonial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ublished his research results on Toegye Studies while infected with the language of deception and violence of the colonial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discourse on nursing and educators proposed by Park Jong-Hong while studying Toegye's educational thought have elements that differ from the basic spirit of Toegye Studies. It can be said that, as it is the study of Toegye Studies developed under the baptism of the theory of teacher education assembled in the language of colonial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it

obscured the identity of Toegye Studies. Park Jong-Hong's research on Toegye continued uncritically after lib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rk Jong-Hong's research on Toegye Studies,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Japanese desires involved in the discourse on nursing and educators. It can be pointed out that Park Jong-Hong's negligence in the study of Toegye Studies before liberation, as a result, acted as a stumbling block rather than a stepping stone to the study of Toegye Studies after liberation.

Key words: Park Jong-Hong, language of deception and violence, discourse of nursing, discourse of educators, Japanese desire.